



## 제2차 협회 정기총회 인사말

친애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협회 제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사 임직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격변했던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제 시장개방화의 확대로 국내·외 구분 없이 밀려오는 도전과 수출환경의 어려움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힘들게 걸어온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기제품의 안전진흥과 회원사 여러분의 공동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협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향후 업계의 발전방향과 우리 협회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박멸작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2005년 10월 1일부터 불법전기용품 조사·확인·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전기제품과 기준미달인 불량한 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 수입 및 판매와 유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전문 요원을 채용하여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실적과 결과를 거울삼아 보다 계획성 있게 우리 시장질서의 암적 존재인 불법·불량전기제품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축출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둘째, 2002년 7월부터 실시된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더불어 운영하고 있는“전기제품PL상담센터”의 활성화 확립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전기제품PL상담센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분쟁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상담에서부터 합의 분쟁조정, 보상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소모적인 법률적 쟁송 이전에 공정한 조정을 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대립적 관계를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PL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난해의 경험과 국제적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에는 보다 성숙된 분쟁 조정기관으로 보다 활성화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청 지원 PL교육을 실시함으로써 PL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진척시킴은 물론 현대해상과의 연계한 PL보험을 소개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무역개방화로 전기제품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확대일로에 있는 덤핑방지 및 산업피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가별 혹은 지역별 블록(Block) 경제의 심화와 국경 없는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경쟁의 상대는 품질, 가격은 물론 서비스를 위시하여 각종 명분을 달리하는 비관세 장벽 그리고 디자인 등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 무역상대국의 부당한 덤핑행위, 산업활동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은 산업피해상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산업피해 상황에 대하여 업종별로 여러분과 함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층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점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재료를 국내에서 단순가공하여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체는 물론 소비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여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전기용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문명의 이기이며, 우리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는 필수제품입니다. 우리 회원사에서 제조하는 신제품 개발 및 우수한 전기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따라서 소비자가 현명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04 우수전기제품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의 경험을 최대한으로 살려 명실공히 국제성격에 걸맞는 대규모의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외국제품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금년도에도 12월 7일~10일 예정으로 “2006년도 우수전기제품 전시회”를 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품질개선과 소비자 안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이 뒤따를 것이며 불법제품이 적발된 제조, 판매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의 수단으로 보다 강화된 방법을 강구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품질은 개선되고 소비자는 재해로부터 안전하며 국민경제가 진작되어 결국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향상 될 것입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다 함께 활기찬 한해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회원사 여러분의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15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김봉균 이사장